

# 맛 좋고 가성비 짱... 착한 가격 냉동·마트 치킨 '불티'

### 가맹치킨 최고 3만 원대... 알뜰한 대체재로 인기 CJ제일제당 '소이허니' 작년 매출 1000억 돌파 마트 3사 PB치킨 비싸야 1만5000원... 판매 '순항'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치킨과 마트 치킨 등 대체재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고물가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간 만큼 냉동·마트 치킨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코바치킨은 7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코바 순살양념치킨 가격은 2만1000원에서 2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지코바치킨은 작년 3월에도 모든 메뉴 가격을 1000~2000원 인상한 바 있다. 업체 측은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가

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담치킨도 이달 1일부터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치킨 값을 올렸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가격과 오프라인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자담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중 최초로 이를 도입했다. 자담치킨 관계자는 "수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본사에서 또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담치킨을 배달로 주문할 경우 △후라이드치킨은 2만3000원 △양념·맵슐랭치킨은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치킨 소비의 대부분이 배달을 통해 이뤄

#### 대형마트 3사 치킨 가격 현황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메이징! 완벽치킨 6480원 (950-1050g)	당단추치킨 6990원 (750-850g)	큰치킨 1만4990원 (1kg 내외)

**가격 인상하는 프랜차이즈 치킨**

- 지코바치킨**: 모든 메뉴 가격 2500원씩 인상, 순살양념치킨 2만3500원
- 자담치킨**: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 도입, 양념·맵슐랭치킨 2만5000원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가격 인상 관련해서는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또한 이중가격제 도입 관련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이중가격제의 경우 본사에서 정한 가격은 권장가격일 뿐 점주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막을 수 없다"

면서 "현재 매장마다 가격이 다른데 이것 역시 강제할 권한이 본사에는 없다"고 말했다.

굽네치킨 관계자도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가격 조정을 원할 경우 가맹계약서상 본사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교촌 관계자는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업계 특성상 배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

이라며 "다만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에 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치킨 가격이 잇달아 오르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냉동 치킨이나 마트 치킨 등 대체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CJ제일제당이 2023년 4월 출시한 '고메 소바바치킨 소이허니'는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 10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이 배달 치킨 대신 냉동 제품 등으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도 7000원~1만5000원대의 PB(자체 브랜드) 치킨을 앞세워 프랜차이즈 치킨과 경쟁하고 있다. 종량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절반 이하에 불과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2년 '당당치킨' 시리즈의

첫 제품으로 6990원짜리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2023년 8월 기준 누적 판매량이 1000만 팩을 넘어 서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10호 냉장 계육을 사용한 '큰 치킨'을 1만4990원에, 9~11호 계육 한 마리 반을 튀긴 '뉴 한통가야 아득 치킨'을 1만2990원에 각각 판매 중이다. 이마트 또한 2022년 9월 '생생치킨' (9980원)을 출시한 데 이어 2023년에는 6480원짜리 '이메이징 완벽치킨'을 선보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3만 원 치킨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대체재인 냉동 치킨과 마트 치킨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올해도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냉동 치킨과 마트 치킨의 인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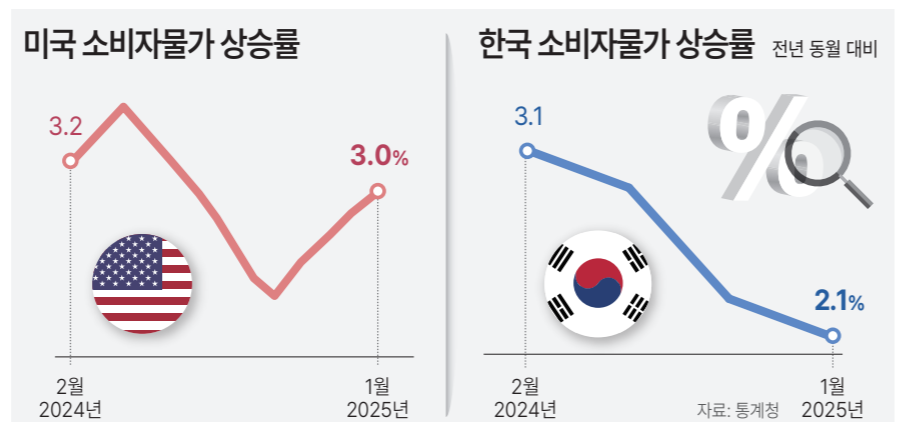
## 美관세 전쟁 장기화... 물가상승 도미노 우려

### 국내 물가상승률 2%대 진입 미국은 10.4%까지 상승 전망 서민 체감 물가는 이미 큰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2%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물가상승 압력이 추가로 커질 수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현재 2.8%에서 최대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단행하면서 물가상승은 국지적인 현상을 넘어 세계적 흐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실제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34%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유럽 연합(EU)은 총 260억 유로(약 42조 원) 상



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작년 4월 발표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도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9~10.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의 실제 조치보다도 완화된 시나리오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도 수입물가가 높아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대외연은 3월 발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38개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p 오를 때 국내 소비자물가 지수는 단기적(3개월 내)으로 0.23%p, 장기(2년 누적)적으로는 0.32%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가공식품·축산물·수산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 체감 물가는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설탕·코코아·차·커피 등 주요 수입 식품 원재료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가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유발하면 오히려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가격이 오른 제품을 소비하지 않게 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역전쟁이 확대돼 각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럽연합(EU)·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다 관세를 올리는 쪽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도 성장률 하락 위험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배민, 2000억 규모 사회적 투자

### 작년 3월부터 순차적 이행 배민라이더스쿨 연내 건립

우아한형제들은 7일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커밋먼트)'의 이행 성과를 발표했다.

커밋먼트는 외식업 사장님과 배달 라이더·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된 핵심 과제들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첫 번째 약속인 '함께 성장'을 위해 배민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민간기업 최초로 금융기관과 협력해 10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약 2600여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올해 1월부터 카카오뱅크·지역신용보증재단과 추가로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상반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배민아카데미에서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856회의 교육을 통해 가게 운영

전반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라이더 안전 및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약속에서는 신규 라이더스쿨을 하남시에 건립 중이며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최대 1만 명의 라이더가 교육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은 전기이론차로 진행된다. 이 밖에 라이더의 보험 가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간제 보험상품 개발을 비롯해,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마지막 약속인 '친환경 배달문화'에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 확대와 친환경 배달수단 도입을 위한 제후를 추진했다. 다화용기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배민 B마트의 포장재를 재활용 소재로 전환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여 친환경 배달문화도 선도하고 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외식업 사장님·라이더·고객과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 투자를 이어 갈 것"이라며 "배달 생태계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잘못된 교과서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을 왜곡하고 뒤틀어 놓는 역사를 배우고 있다.”

###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대한민국 이야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워보자! 학생, 학부모 모두 읽어야 할 책!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